

대학에서의 학습 및 활동을 중심으로 본 입학사정관제 성과*

김준엽 (金俊燁)**

박소영 (朴昭暎)***

신혜숙 (申惠淑)****

민병철 (閔丙哲)*****

논문 요약

대학입학사정관제는 2008년 도입 이후 현재 전체 대학 선발 인원의 10%가 넘는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입학사정관제의 정책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들과 일반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의 4~7차년도 자료(고등학교 1학년 ~ 대학 1학년)를 활용하였으며, 대학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중모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입학사정관제 입학생과 일반전형 입학생 간의 학업성취도, 자발적 학습활동 정도, 수업 참여도, 대학 프로그램 참여활동, 자치활동 참여 활동 등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전형 입학생에 비하여 입학사정관 입학생들이 대학에서 수업참여도가 높고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더 많이 하며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 정도가 높았으나, 대학학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입학사정관제 성과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입학사정관전형, 대학입학제도, 정책성과분석, 한국교육종단연구, 다중모형

* 이 논문은 2012년 제6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임

** 제1저자,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졸업

I. 서론

본 연구는 대학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실제로 대학 생활을 보다 잘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학생의 성적, 개인 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교육과학기술부, 2007)로서, 대학과 고등학교 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입시위주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잠재력 있는 신입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김양분 외, 2011).

대학입학사정관제도는 2008학년도 입시에서 10개 대학이 254명의 학생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 기준 4년제 대학 총 입학정원의 약 11.5%가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선발인원뿐만 아니라 전형의 종류나 적용시기 등에서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제도 도입 초기 정원의 특별전형에 주로 활용되던 방식에서 점차 정시 및 수시 일반전형에까지 적용의 폭이 확대되었다(양성관, 2009; 김신영, 2011).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도 증가하면서, 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정부의 주요 대학입학정책의 하나로서 평가될 수 있다(김신영, 2011).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나 언론 등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문제 중 하나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공정성과 관련된 것이었으며(김희용, 2011; 손희권·주휘정, 2009; 이윤미, 2009; 임규홍, 2012; 최경호, 한동욱, 2010), 사정 관점에서의 객관성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최경호·한동욱, 2010). 이런 문제 제기가 예비 입학생 혹은 학부모로부터 촉발된 것이라면, 대학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우수 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이경희, 2010; 이영재 등, 2005; 김지하·이병식, 2010).

그러나 현재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많으며(강태중 외, 2012; 양성관·정일환, 2007; 정일환·김병주, 2008),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입학사정관제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거나(김양분 외, 2011; 이필남, 2011), 사교육에 대한 입학사정관제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다(김승태, 2012, 김양분 외, 2011; 안선희 외, 2009; 이필남, 2011).

입학사정관제의 도입배경 및 목적을 고려할 때, 사교육비 경감 외에 대학생활 측면에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책의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 정규 수업, 자발적 학습활동, 자치활동의 참여 정도 등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입학사정관제의 타당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업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학생활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를 고려할 때, 대학에서의 성과는 학업성취 뿐 아니라, 적극성이나 자기주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기존전형방식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과연 높은 수준의 인지적 성취를 거두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연구문제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제시된 대학생활의 개념은 입학사정관제의 제도적 목적과 관련된 인지적 성취 및 학습태도, 자기주도성 등을 의미한다.

입학사정관제가 최근 도입되어 대학입학 이후의 성과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이에 대한 실증분석도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입학사정관제 실시대학에서는 각 대학별로 제도의 성과분석을 위해 입학생에 대한 추수조사를 실시하여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개별대학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분석영역이 상이하고 그 결과 또한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실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영역에 대해 조사한 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별 성과도 비교 가능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특성 또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대로 대학별로 수행되는 자체연구를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중단연구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중단연구는 2005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매년 추수조사되었는데, 조사대상이 7차년도인 2011년 대학에 입학하였다. 이 중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포함되어 있고 대학생활에 대한 방대한 설문이 동일하게 실시되어 전형방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대학성과의 차이는 동일한 대학의 학생들이 수업이나 생활면에서 동일한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석에는 ‘학생-대학’의 2수준 다층모형이 적용되었다. 더불어 각 학교 내에서 입학사정관제 학생과 그 외 학생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 중 두 종류의 학생이 모두 존재하는 학교의 재학생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입학사정관제 전개와 도입

입학사정관제는 기존의 시험 위주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적, 개인 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한국대학교

육협의회 보도자료, 2007. 8. 3). 즉 입학사정관제는 내신 성적과 수능점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신입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수능과 내신 등의 시험점수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여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정책적 목적이 있다. 한편,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과 특성화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대학 정책 측면에서의 목적이 있다(김양분 외, 2011).

이와 같은 정책적 목적 하에 2004년 10월 발표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입학사정관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제시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는 2008년 2008년 대학입학 전형에서 시범 실시된 이후, 다음해인 2009년 입시제도 개선의 주요 방안으로 부각되면서 대폭 확대된다(안정희, 배성아, 2009). 그 결과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에는 각각 10개, 16개, 47개, 116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였고, 2012년에는 122개 대학에서 총 43,138명의 학생들이 이를 통해 선발되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특히 2010년 이후에는 모집인원의 확대와 더불어 전형 방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배성아, 안정희, 2011), 정부 지원금 또한 2010년 236억, 2011년 350억으로 증대되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2007년(2008학년도 입시)부터 2012년(2013학년도 입시)에 이르기까지의 6년간의 연도별 입학사정관제 운영 대학 및 대학 입학사정관제 운영 현황은 <표 1>과 같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의 운영 현황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전형 운영대학 수와 총 모집인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선 전체 정원의 11.5%를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할 것이라 보도되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2011. 12. 9). 구체적으로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7,035명 감소하였지만,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 모집인원은 975명 증가하였다. 수시모집에서의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인원은 8,061명 증가하였고, 반면 정시모집에서 모집인원은 7,086명 감소하였다. 특히 수시모집의 선발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수시모집에서의 입학사정관전형의 비율은 증가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1> 입학사정관제 운영대학 현황 및 입학정원

연도	정부 지원		독자실시대학 (B)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 (A+B)	입학사정관제 입학정원 (명)	4년제대 입학정원 대비 비율(%)
	대학 (A)	지원예산 (억원)				
'07년	10	20	-	10	-	-
'08년	40	157	-	40	4,476	1.3
'09년	47	236	43	90	24,696	7.0
'10년	60	350	57	117	35,421	10.1
'11년	60	351	61	121	42,163	10.7
'12년	66	391	59	125	43,138	11.5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2012. 3. 21) 수정

2. 대학입학전형과 대학생활 관련 선행연구

입학사정관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입학사정관제도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소개하거나 (강태중 외, 2012; 양성관·정일환, 2007; 정일환·김병주, 2008),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제 현황과 특징,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김용기, 2008; 배성아·안정희, 2011; 이윤미, 2009; 임규홍, 2012; 최경호·한동욱, 2010). 실증자료를 활용한 연구로서는 입학사정관제에 지원 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거나(김양분 외, 2011; 이필남, 2011), 입학사정관제와 사교육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다(김승태, 2012, 김양분 외, 2011; 안선희 외, 2009; 이필남, 2011).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를 통하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진학이나 학업성취도, 대학에서의 적응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이는 입학사정관제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 이에 대한 자료 수집이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생 대상 연구가 개별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공유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공개된 연구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대학적응 및 성취도에 관한 개별 대학의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다. 수시와 정시 모집 학생을 비교한 이경희(2010)의 연구결과를 보면, 정시모집 학생들에 비하여 수시모집 학생들의 대학학업성취도의 평점평균이 낮았다. 그러나 이영재 등(2005)의 연구에서는 수시모집집단이 정시모집집단에 비하여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김지하와 이병식(2010)의 연구에서도 수시모집 입학생들이 정시모집 입학생들에 비하여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의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입학전형요소별 대학 학점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수능성적에 비하여 대학학업성취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수능성적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2010) 연구에서는 학생부 성적이 수능성적보다 대학 1학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등급이 높으나 수능성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대학의 기초교육이나 보충 교육 등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노경란과 윤수정(2012)의 연구 결과,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목표에 따라 대학과 전공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정시 입학생들에 비하여 대학에 대한 적응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전공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생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대학활동 참여가 내재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적응에 대한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후 일반전형 입학생들의 인식을 동시에 조사함으로써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대학생 적응이나 대학학점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를 통하여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윤소정·윤채영, 2011; 이원석, 2012). 입학사정관과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이원석(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을 위한 별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입학사정관제에 내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사후관리 프로그램 역시 합격생을 위한 단기적인 예비학교나 영어, 수학 등 도구과목의 보완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잠재력 발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분석 결과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하여 대학 입학 후 학생의 생활이나 성취 결과 등과 관련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입학사정관제 지원여부,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학입학여부, 대학적응 및 만족도, 대학학점 등의 정보를 포함한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대학적응 및 대학생활 등에 대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한 한국교육종단연구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2005년 전국 150개 중학교 6,9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2012년 현재 8년

제 추적 조사 중이며, 매년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것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2011년 조사된 7차년도 자료이며, 이 자료에는 대학 진학결과와 선발된 전형방법(입학사정관제 선발여부 포함),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엄밀한 분석을 위해 2011년 이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2011년 입학했다 라도 외국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1년 국내 4년제 대학 1학년으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대학 생활 분석을 위해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과 입학사정관제가 아닌 기존 전형방법으로 입학한 학생을 비교해야 한다. 다만 보다 명확한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를 제외한 다른 조건의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념적으로 같은 대학 안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과 기존 전형방법으로 입학한 학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이 경우,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만 두 종류의 학생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 및 그 대학에 재학중인 입학사정관제 및 기존 전형을 통한 입학생이 된다.

한국교육중단연구 조사대상 6,908명 중 다수가 2011년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 때 대학입학자를 선발하는데 있어,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한 대학은 총 118개교(정부지원 60개교, 독자실시 58개교)이었다(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2009. 11. 30; 교육과학기술부·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2010. 6. 17). 118개교 중 3개 대학에는 조사대상이 진학하지 않아, 이들 학교를 제외한 총 115개 대학에 재학 중인 조사대상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교육중단연구 조사대상 중 115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모두 1,850명(입학사정관제 230명, 기존 전형방법 1,619명, 결측 1명)이었다. 다만 일부 대학에는 조사대상이 모두 입학사정관제나 기존 전형방법으로 선발된 경우가 있었다.¹⁾ 이런 대학에서는 두 종류의 학생을 비교·분석할 수 없어 분석 대상에 제외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분석자료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과 기존 전형방법으로 선발된 학생이 각각 1명 이상 존재하는 학교는 82개 대학이고 그 대학의 소속 학생은 1,474명(입학사정관제 228명, 기존 전형방법 1,245명, 결측 1명)이었다. 분석 대상 1,474명 중에는 분석 변인에 결측이 있어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일부 사례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제외한 분석 사례는 1,422명(82개교)이었다.

1) 예를 들어 포항공대에 재학 중인 조사대상 2명은 모두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되었으며, 가천의과학대에 재학 중인 조사대상 9명은 모두 입학사정관제가 아닌 전통적 전형 방법으로 선발되었다. 이 두 대학과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생들을 분석 대상에 제외되었다.

2. 분석 변인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얼마나 대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변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대학생활에서의 성과는 7차년도 자료에 포함된 대학학점, 자발적 학습(학습활동 참여정도), 수업 참여정도, 비정규 프로그램 참여(대학제공 프로그램 참여), 기타 교내활동(자치활동) 참여정도 등을 통해 측정해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학점은 2012년 1학기 학점이 조사(7차년도 대학생설문 16번)되었는데, 학교별 만점이 4.0점, 4.3점, 4.5점 등으로 달라 이를 보정해 비교할 필요가 있어, 100점 만점으로 변환해 사용하였다. 대학에서의 학습활동 참여정도는 9개 문항²⁾에 동의하는 정도를 조사한 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수업 참여도는 2011년 1학기 온라인 강의를 포함한 수업에서 토론 참여, 질문, 팀 프로젝트 참여, 발표, 수업 준비 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측정(7차년도 대학생설문 14번)해 그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alpha=.811$). 비정규 프로그램 참여정도(7차년도 대학생설문 13번 5)~10))는 2011년 1학기 리더십 개발, 현장실습 프로그램, 멘토링, 튜터링, 진로개발 또는 취업역량 개발, 진로상담 등 6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여부를 각각 더미 코딩한 후 이 값들을 합쳐 측정하였다. 기타 교내 활동 참여정도(7차년도 대학생설문 13번 13)~16)) 또한 같은 시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회 활동, 교내 축제 또는 문화행사, 대학 간 교류(체육, 학술) 활동 등 4개 활동에 대한 참여여부를 더미 코딩한 후 이 값들을 합쳐 사용하였다.

통제변인으로 전공계열이 사용되었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등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약계열에 속하는 사례가 없어 이를 제외하고, 예체능계열을 기준으로 삼아,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공학계열 등을 각각 더미변인으로 변환했다.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대학설립유형과 대학소재지 변인을 대학특성으로 고려하여 전체 대상에 대한 분석과 함께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변인과 기초통계량은 <표 2>와 같다. 표 2를 포함한 이후의 분석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124명의 학생이 포함되었다. 이들 정원 외 특별전형은 농어촌 특별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재외국민 등 소위 사회적 배려대상 전형을 포함한다. 민감도 분석 차원에서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동일한 모형으로 추가분석이 실시되었으며, 분석의 결과는 본 연구에 제시된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2) 대학에서의 학습활동은, '1) 수업시간에 질문한다', '2)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한다', '3)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좋은지에 대해 평가한다', '4)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에 도전한다', '5) 자발적으로 글쓰기를 연습한다', '6) 학술논문이나 자료를 찾아본다', '7) 개인적으로 흥미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공부한다', '8) 실수도 배우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인다', '9) 내가 한 일이나 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등 9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평균해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alpha=.797$ 이었다.

<표 2> 분석변인 설명 및 통계량

구분	변인명	변인설명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관심 변인	입학사정관제 합격여부	대학생 7차년도 (입학사정관제=1)	.15	.36	.00	1.00
	대학 학업성취도	대학생 7차 16번 (100점 환산 점수)	83.00	6.32	60.00	100.00
대학 생활 (종속 변인)	자발적 학습활동	대학생 7차 9번 평균	3.07	.53	1.22	4.89
	수업 참여도	대학생 7차 14번 평균	3.29	.62	1.00	5.00
	대학프로그램 참여	대학생 7차 13번 5)-10) 합	1.35	1.41	.00	6.00
	자치활동 참여	대학생 7차 13번 14)-16) 합	2.43	.98	.00	4.00
통제 변인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1, 그 외=0	.43	.50	.00	1.00
	(기준범주 예체능계열)	자연계열=1, 그 외=0	.19	.40	.00	1.00
		공학계열=1, 그 외=0	.28	.45	.00	1.00
대학 특성	대학 설립유형	국공립=1, 사립=0	.24	.43	.00	1.00
	대학 소재지	수도권=1, 비수도권=0	.38	.49	.00	1.00

3. 분석 모형

대학생활과 관련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는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학생의 전공계열이나 대학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다중모형을 적용하였다. 기본모형에서는 대학생활 관련 성과를 종속변인으로,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를 설명변인으로 투입하여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에 따른 대학생활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입학사정관제의 효과는 대학별로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검증하였고, 최종모형에서는 전공계열을 통제한 이후에도 입학사정관제의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고자 학생수준에서 예체능계열을 기준으로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등 3개의 더미변인을 사용하였다. 대학의 유형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학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수도권/비수도권, 국공립/사립으로 나누어 집단별 결과 차이를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적용된 모형은 다음과 같다.

(학생수준)

$$Y_{ij} = \beta_{0j} + \beta_{1j}X_{ij} + \beta_{2j}LIB_{ij} + \beta_{3j}SCI_{ij} + \beta_{4j}ENG_{ij} + r_{ij}, r_{ij} \sim N(0, \sigma^2) \quad (\text{식 1})$$

Y_{ij} 는 대학생활과 관련된 성과변수

X_{ij} 는 입학사정관제 선발여부 (입학사정관제=1, 기존 전형방법=0)

LIB_{ij} 는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인문사회계열=1, 기타계열=0)

SCI_{ij} 는 전공계열(자연계열) (자연계열=1, 기타계열=0)

ENG_{ij} 는 전공계열(공학계열) (공학계열=1, 기타계열=0)

(학교수준)

$$\begin{aligned} \beta_{0j} &= \gamma_{00} + u_{0j}, \\ \beta_{1j} &= \gamma_{10} + u_{1j}, \\ \beta_{qj} &= \gamma_{q0}, \quad q = 2 \dots 4. \end{aligned} \quad \begin{pmatrix} u_{0j} \\ u_{1j} \end{pmatrix} \sim N \begin{pmatrix} \tau_{00} & \tau_{01} \\ \tau_{10} & \tau_{11} \end{pmatrix} \quad (\text{식 2})$$

IV. 연구 결과

대학 특성별(수도권/비수도권, 국공립/사립)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주요 성과변인의 기술통계치는 <표 3>과 같다. 이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기존 전형방식으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자발적 학습활동 및 수업 참여도에서 모든 대학 유형에서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이 기존전형 입학생보다 학점이 높고 자치활동 참여가 낮은 경향이 있었으나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반대로 나타났다. 한편, 사립대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이 대학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국공립대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없는 등 대학 제공 프로그램 참여정도, 학생회 등의 자치활동 참여 및 대학학점 등에서 대학 특성에 따라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과 기존전형 입학생 차이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고교활동 관련 입학사정관제의 성과 분석을 위해 <표 4>와 <표 5>에서 학생들의 전공영역을 통제한 이후 입학사정관제 입학생과 기존전형 입학생의 대학활동을 비교하였다.

<표 3> 대학특성별 입학사정관전형과 기존전형 학생 간 대학활동 비교

분석 변인	대학소재지				설립유형			
	수도권대 (입학사정관제 18.6%)		비수도권 (입학사정관제 13.9%)		국공립대 (입학사정관제 15.9%)		사립대 (입학사정관제 15.3%)	
	입학 사정관제	기존전형	입학 사정관제	기존전형	입학 사정관제	기존전형	입학 사정관제	기존전형
자발적학습활동	3.25 (.50)	3.15 (.51)	3.16 (.53)	3.00 (.53)	3.11 (.45)	3.05 (.55)	3.23 (.54)	3.05 (.52)
수업 참여도	3.49 (.68)	3.36 (.59)	3.37 (.68)	3.22 (.62)	3.31 (.63)	3.25 (.66)	3.46 (.70)	3.27 (.60)
대학프로그램참여	1.20 (1.42)	1.09 (1.33)	1.72 (1.58)	1.44 (1.39)	1.26 (1.33)	1.28 (1.32)	1.61 (1.60)	1.35 (1.40)
자치활동참여	2.40 (1.00)	2.43 (.88)	2.47 (1.08)	2.42 (1.00)	2.32 (1.05)	2.41 (.91)	2.49 (1.04)	2.43 (.98)
대학학점	84.23 (6.37)	83.66 (6.05)	82.03 (6.33)	83.30 (6.49)	82.38 (6.18)	83.14 (6.45)	83.12 (6.52)	83.51 (6.32)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입학생이 기존전형을 통한 입학생과 비교하여 학업을 비롯한 다양한 대학생활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 및 <표 5>와 같다. 통제모형 분석에서는 학생들의 전공영역을 통제하고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에 따른 차이를 식(1)과 식(2)에 제시된 다중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연구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은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82개 대학 전체뿐 아니라 수도권, 비수도권, 국공립대, 사립대로 하위집단을 나누어서도 수행되었다.

대학학점에 대한 입학사정관제의 효과를 살펴보면, 통제모형에서 비수도권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이 기존전형에 비해 1.24점 정도 낮았던 것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첫 학기의 결과이고, 대부분 전공학점 보다는 교양과목의 학점으로, 학생들의 노력에 의한 차별적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개별 대학에서 학업성취도에 따른 입학사정관제의 성과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만큼(대학교육협의회, 2012), 추후 장기적인 학점자료 축적을 통해 학업성취의 변화양상을 정밀하게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수업 참여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립대에서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수업 참여도가 기존전형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경향이 있었다. 국공립대의 경우 입학사정관제-기존전형간 수업 참여도의 차이가 없었다.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활동의 경우도 수업참여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국공립대보다 사립대에서, 수도권 대학보다 비수도권 대학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

<표 4> 대학학점, 수업참여 및 자발적 학습활동에 대한 입학사정관제 효과

		대학학점 (1학년 1학기)		수업참여		자발적 학습활동	
		기본모형	통제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전체대학 (82개교)	입학사정관제 효과	-.41 (.47)	-.45 (.47)	.15** (.05)	.15** (.05)	.14*** (.04)	.15*** (.04)
	학생간 분산	38.30	37.89	.38	.38	.27	.27
	대학간 분산	1.63***	1.72***	.01*	.01**	.01**	.01**
	입학사정관제 효과 분산	-	-	-	-	-	-
수도권대 (30개교)	입학사정관제 효과	.65 (.81)	.74 (.82)	.13 [†] (.07)	.14* (.07)	.10 [†] (.06)	.11 [†] (.06)
	학생간 분산	34.95	33.82	.37	.40	.26	.26
	대학간 분산	1.79*	1.94**	.00	.00	.00	.00
	입학사정관제 효과 분산	4.70*	3.80 [†]	-	-	-	.01 [†]
비수도권대 (52개교)	입학사정관제 효과	-1.18* (.53)	-1.24* (.52)	.14* (.06)	.14* (.06)	.16** (.04)	.16*** (.04)
	학생간 분산	39.48	39.15	.39	.39	.27	.27
	대학간 분산	1.63**	1.75**	.00	.00	.00*	.00*
	입학사정관제 효과 분산	-	-	-	-	-	-
국공립대 (18개교)	입학사정관제 효과	-.73 (.76)	.89 (.76)	.05 (.08)	.05 (.08)	.04 (.05)	.04 (.05)
	학생간 분산	38.95	38.07	.43	.43	.28	.28
	대학간 분산	1.39*	1.50*	.00	.00	.01**	.01**
	입학사정관제 효과 분산	-	-	-	-	-	-
사립대 (64개교)	입학사정관제 효과	-.30 (.59)	-.30 (.58)	.18** (.05)	.18** (.05)	.18*** (.04)	.18*** (.04)
	학생간 분산	38.10	37.86	.37	.37	.26	.26
	대학간 분산	1.74***	1.82	.01 [†]	.01 [†]	.01*	.01**
	입학사정관제 효과 분산	-	-	-	-	-	.01 [†]

[†]p<.10, *p<.05, **p<.01, ***p<.001

대학이 제공하는 리더십, 취업, 현장실습 등의 경우 전체적으로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참여도가 기존전형 입학생에 비해 더 높은 편이었다(<표 5>). 대학 특성별로는 비수도권 대학과 사립대에서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참여도가 기존전형에 비해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부담이 덜한 수도권 대학보다 비수도권 대학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이나 현장실습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학교에서 보다 분명한 경향성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사회, 축제 등 학생자치활동의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제의 효과가 어느 유형의 대학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표 5> 대학 프로그램 및 자치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입학사정관제 효과

		대학 프로그램 참여		자치활동 참여	
		기본모형	통제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전체대학 (82개교)	입학사정관제 효과	.29(.10)**	.29(.10)**	.02(.07)	.02(.07)
	학생간 분산	1.73	1.74	.93	.93
	대학간 분산	.26***	.26***	.02*	.02*
	입학사정관제 효과 분산	-	-	-	-
수도권대 (30개교)	입학사정관제 효과	.17(.14)	.19(.13)	-.04(.12)	-.04(.12)
	학생간 분산	1.66	1.65	.78	.77
	대학간 분산	.17***	.16***	.03*	.04**
	입학사정관제 효과 분산	-	-	.10*	.12*
비수도권대 (52개교)	입학사정관제 효과	.37(.177)***	.37(.13)**	.05(.08)***	.05(.08)
	학생간 분산	1.77	1.77	1.00	1.02
	대학간 분산	.25***	.25***	.02 [†]	.02 [†]
	입학사정관제 효과 분산	-	-	-	-
국공립대 (18개교)	입학사정관제 효과	.18(.15)	.18(.15)	-.08(.14)	-.07(.14)
	학생간 분산	1.52	1.53	.88	.88
	대학간 분산	.25***	.25***	.00	.00
	입학사정관제 효과 분산	-	-	-	-
사립대 (64개교)	입학사정관제 효과	.33(.12)**	.34(.12)**	.05(.07)	.06(.07)
	학생간 분산	1.81	1.81	.95	.97
	대학간 분산	.26***	.26***	.03.**	.18**
	입학사정관제 효과 분산	-	-	-	-

[†]p<.10, *p<.05, **p<.01, ***p<.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들은 대체로 기존전형 합격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학생활을 영위하며, 대학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결과 중 하나는 사립대 및 비수도권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의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입학전 교육을 포함한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에 대한 추수지도 프로그램의 국공립대-사립대 격차가 존재한다면 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입학사정관제의 효과가 일반학생들에게까지 전이되는 효과(carry-over effect)가 국공립대에서 강하게 나타났다면 이것이 국공립대에서 입학사정관제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후속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성과를 대학 적응과 만족도, 대학학점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05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한국교육중단연구의 7차년도 자료로서 대상 학생들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고등교육, 취업, 입대 등으로 진로가 분화된 첫 해의 자료이다. 본 자료를 활용하여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 중 입학사정관제 및 기존전형방식으로 합격한 학생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실제로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의 대학생활 성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선발 과정이 대학생활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했던 것인지에 추론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입학사정관제 입학 학생의 대학 생활 및 대학 성취도

본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통해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할 때(유현숙 외, 2010; 2011), 대학생들의 학교 생활은 대체로 수업과 관련된 학업성취 활동, 수업 외 자발적 학습 활동, 동아리 활동 등 자치 활동과 대학 제공 프로그램 참여 활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와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생활 특성은 학점, 수업 참여정도, 자발적 학습활동, 대학 프로그램 참여도, 학생 자치활동 참여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은 수업 참여도가 높고, 자발적 학습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정도가 더 높았다. 대학의 프로그램 제공 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정도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자발적 학습활동 측면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들의 정의적 특질 측면에서 자기주도성과 적극적인 태도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점은 전반적으로 일반 전형 학생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오히려 학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의 학점은 1학년 1학기 교양교과 학점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전공과 관련된 학습결과 및 학습의 누적적 결과를 통한 분석이 가능할 때까지는 판단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

2) 대학자율화 측면에서의 입학사정관제의 제도적 성과

입학사정관제의 제도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대학의 자율성 확대라는 기조에서 맞추어 있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조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대학은 국가의 가장 큰 규제 조항 중 하나로서 선발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 주장해왔으며, 2008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 때,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입학전형제도가 학교 자체의 지역적 특성, 교육적 독자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분석 결과,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대학별 특성화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학 특성이 대학 소재지와 대학 설립유형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학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에서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수업참여도가 높았고,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활동의 경우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도 사립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 효과가 나타난 반면, 국공립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대학 프로그램 참여의 경우에는 대학 소재지별로도 차이를 나타냈는데, 수도권 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학특성별 입학사정관제 효과 차이는 대학 특성에 따라 입학사정관제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입학사정관제가 대학별 특성화에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결론 및 제언

1) 대학의 특성화 제고 필요

대학입학사정관계 운영에 있어 대학별 입학전형의 특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학 자율화 이후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이라는 제도 안에서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각 대학은 대학의 설립유형과 소재지 구분에 따라 부분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선발에서 대학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학의 특성이 국공립 여부, 수도권 소재 여부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06년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대학은 대학별 특성에 적합하게 학생을 선발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학생의 33%, 교사의 45%, 학부모의 29%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대학의 학생선발 특성화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김미숙 외, 2006). 만약 2012년 현재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대학의 학생선발 특성화에 대해 긍정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결과는 부분적으로 대학별로 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입학사정관 제도만으로 보았을 때는 그동안 제도의 발전이 대학의 자율성 확보보다는 선발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이후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권고하는 ‘모든 대학의 입학사정관전형의 대학교육협의회 심의’에 대한 규제와 고교 재학생 제출 서류 양식의 통일 등은 대학의 선발 특성화를 저해하는 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교육협의회 이러한 조치는 제도 도입 초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이로 인한 대학별로 특성화된 전형의 개발에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학별 특성화라는 관점과 제도 도입의 의의를 고려한다면, 고등학교에 대한 영향력이나 사회적 반향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화 확보 노력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제공하는 대학교육협의회 기준 서류 이외에 대학별 특성화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 안이나 현재 고교 생활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대학 특성별로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도록 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대학 수학 적격자에 대한 합의 필요

대학별 특성화 제고를 통해 대학별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학수학 적격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즉, 모든 대학에서 그들이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대한 특성화가 필요한 한편, 최소한 대학이

라는 고등 전문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수학 능력이라는 공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대학교육협의회 심의’에서 제시하는 제출 서류 등은 이런 최소한의 공통 기반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 수학 적격자에 대한 특성을 대학입학 이후 학점, 수업참여, 자발적 학습활동, 대학 프로그램 참여, 자치활동 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수업참여, 자발적 학습활동, 대학 프로그램 참여 등의 정도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았으며, 대학 학점과 자치활동 참여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이나 적극성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학생들의 지적 측면에서의 수월성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입학사정관제의 제도 도입 당시 학생의 지적 능력보다는 여타의 활동에 대해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형이 개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전형 개발이 향후 입학사정관 전형이 30%로 확대되는 시점에서도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된다는 것은 그동안 특별 전형으로서의 의미에서 벗어나 일반 전형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전에 강조되던 요소 이외의 요소(예를 들어 지적 능력)가 강조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입학사정관 전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기초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3)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지속적 성과 분석 필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입학사정관제 성과 분석은 입학사정관제인가 아닌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을 분석하면, 입학사정관제인가 아닌가 사이에 구분되는 전형요소나 선발 기준 등에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이외의 전형과 구분되는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도가 잠재능력 우수자를 위주로 한 전형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전형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상이한 대상에 대한 보다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구성되어 있는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자 124명을 포함하여 분석이 실시되었다. 결과의 민감도(sensitivity)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자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는 본 연구에 제시된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아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실시되지 않았다. 추후 자료가 가용한 시점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목적유형으로 구분하여 유사한 목적을 공유하는 전형방식별로 맞춤형 성과변수를 개발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이 실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입학사정관제로 투입되는 국가 예산을 고려한다면,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가 가지는 비용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물론 학생의 교육적 성과에 대해 비용 효과성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본 제도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성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태중, 송혜정, 김진경 (2012). '사교육'에 대한 입학사정관 전형의 영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3(4), 1-34.
- 교육과학기술부(2007. 6. 15). **입학사정관제 지원계획**.
- 교육과학기술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2. 3. 21). **2012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공고**.
- 김신영(2011).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주제발표 III). **입학사정관제 성과와 발전방안(제34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 8. 26).
- 김미숙, 강영혜, 황여정, 박소영, 이희숙(2006).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06-02-01.
- 김승태(2012). 입학사정관제도와 사교육의 연관성에 관한 소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1), 237-264.
- 김양분, 임현정, 신혜숙, 남궁지영, 양수경, 김위정, 이재경(2011).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11-24.
- 김용기(2008).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발전방안. **한국교육논단**, 7(2), 127-147.
- 김지하, 이병식(2010). 대학입학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교육성과 차이 분석. **교육과학연구**, 42(2), 209-230.
- 김회용(2011). 공정성 개념 분석과 대학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교육사상연구**, 25(1), 21-50.
- 노경란, 윤수경(2012).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의 대학 적응 특성에 대한 이해: 4년제 여자대학교의 입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3(1), 91-118.
- 손희권, 주휘정(2009). 신문이 제시한 대학입학사정관제 개선방안의 비판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34, 1-24.
- 안선희, 정일환, 주동범(2009). 입학사정관제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6(2), 7-33.
- 안정희, 배성아(2009).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사회적 논의 과정 분석: 일간지 보도기사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0(3), 1-30.
- 양성관(2009). 대학입학사정관제의 특징 및 개선방안 분석: Cooper 등의 4차원 정책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교육정치학연구**, 16(3), 125-148.
- 양성관, 정일환(2007).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전형자료, 입학사정관제도 및 기여입학제도 분석 - 개별적 검토를 중심으로: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전형 자료, 입학사정관제도 및 기여입

- 학제도 분석. **비교교육연구**, 17(3), 167-190.
- 유현숙, 임후남, 최정윤, 여승수, 서영인, 고장완, 신현석, 한상임(2010).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 (I)**.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10-17.
- 유현숙, 임후남, 서영인, 신현석, 고장완, 박승호(2011).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11-13.
- 윤소정, 윤채영(2011). 입학사정관제 신입생을 위한 대학적응프로그램 개발. **수산해양교육연구**, 23(1), 23-34.
- 이경희(2010). 고교성적, 수능성적, 대학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고찰: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3), 313-342.
- 이규용, 김용현(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 요인. **노동정책연구**, 3(2), 69-94.
- 이영재, 임연기, 서광수(2005). 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수시·정시 합격자의 수능·학생부 성적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활용방안 모색 연구. **교육연구**, 19, 73-96.
- 이원석(2012). 입학사정관전형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사정관과 입학생의 인식조사: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중심. **교육문제연구**, 43, 113-133.
- 이윤미(2009). 입학사정관제도 확대를 우려하며. **초등우리교육**, 239, 72-79.
- 이필남(2011).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 계획과 사교육비 지출 관계 분석. **제5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RM2011-021.
- 임규홍(2012). 입학사정관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K대학교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 리뷰**, 3(1), 153-170.
- 정일환, 김병주(2008). 미국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사례와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8(4), 113-139.
- 최경호, 한동욱(2010). 입학사정 전형요소 상대적 중요도 결정에 대한 퍼지 계층분석적 접근방법: S대학교 사례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1(4), 699-708.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7. 8. 3). **2007년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결과 발표**. 보도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 12. 9). **대교협, 201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보도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2). **입학사정관제 5년 성과 및 발전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미나 자료집.

* 논문접수 2013년 1월 31일 / 1차 심사 2013년 2월 28일 / 게재승인 2013년 3월 21일

* 김준엽: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UCLA에서 교육통계 및 연구방법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최근 발표 논문으로는 'Planning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and private tutoring needs in Korea', '학생 종단자료를 이용한 학교 부가가치지수 산출의 적용 타당성' 등이 있다.

* E-mail: junyeop@gmail.com

* 박소영: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에서 교육행정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발표 논문으로는 'Kingdon의 다중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한 수석교사제 정책 분석',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옹호연합의 형성과 작동', '수석교사제 법제화의 의미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등이 있다.

* E-mail: syngprk@sm.ac.kr

* 신혜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UCLA에서 교육통계 및 연구방법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 발표논문으로는 '학력격차에 대한 학교수준 방과후학교 참여율의 효과분석', '다층잠재변인회귀모형을 적용한 고등학교 학교효과 추정 및 효과적인 학교 특성 분석' 등이 있다.

* E-mail: teatime02@gmail.com

* 민병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 발표논문으로는 '학력향상중점학교와 일반학교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설명하는 학생 및 학교 특성 분석: 서울교육종단연구 중학교 자료를 중심으로', '다층잠재변인회귀모형을 적용한 고등학교 학교효과 추정 및 효과적인 학교 특성 분석' 등이 있다.

* E-mail: bcmin80@gmail.com

Abstract

Evaluating Admission Officer System Based on College Students' Outcomes^{*}

Kim, Junyeop^{**}Park, So-Young^{***}Shin, Hye Sook^{****}Min, Byeongche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dmission officer policy effects on college students' outcomes. The admission officer(AO) system is implemented and expanded from 2008. Since many universities adopt the system and governmental funding is growing, policy evaluation for this system is required. For policy analysis, data from 7th round data of KELS is employed. From the KELS data, students in universities that adopt AO system are selected and their various activities and achievement outcomes are compared between students who enter the university though AO and those does not. Multilevel (individual and university level) analysis is used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between foundation type (public and private) and location (capital and non-capital). Results shows that after controlling for students' major, AO students tend to be more active at participating in the programs that universities offer. However, the achievement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 results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ies. The AO system is more effective in private universities compared to in public ones, in general. The tendency is more distinct at universities in capital than those in non-capital.

Key words: admission officer system, policy evaluation, KELS, multilevel analysis

* This study was written based on the presented contents in the 6th KELS(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conference.

** First author, Professor, Hongik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Seoul National University